

광주, 돼지고기 비싸고 짜장면 싸다

광주지역 돼지고기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료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25개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농축산물 가격을 시도별로 조사해 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www.mulga.go.kr) 등에 발표했다

물가정보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공공요금 가운데 전철·버스요금은 현금기준 1200원으로 대구·대전과 함께 가장 높았다. 반면 택시 기본요금은 중형기준 22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도시가스요금(12㎡)과 상수도요금(20㎡)은 9755원, 8450원으로 전국평균(1만118원, 9664원)보다 낮았지만 하수도요금(20㎡)은 4200원으로 평균(3584원)보다 616원 높았고, 쓰레기봉투(20ℓ)

행안부·통계청 25개 지방물가정보 공개

공공요금 지역간 격차...비빔밥값도 제각각

도 740원으로 평균(425원)보다 315원 높았다.

개인서비스 부문 외식비 가운데 광주는 비빔밥(6400원), 김치찌개 백반(5400원), 삼계탕(1만2600원), 김밥(2900원)이 전국 평균보다 비싸고, 냉면(6400원), 삼겹살(200g, 1만667원), 짜장면(4000원) 등은 평균보다 저렴했다. 또 세탁료(5800원)와 숙박료(2만7400원), 목욕료(4700원)도 전국 평균보다 아랫였으며 이발료는 88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농축산물 가운데 돼지고기(삼겹살 500g)는 1만3180원으로 전국에

서 가장 비쌌다. 소고기(등심 500g, 3만3627원), 달걀(특란 10개, 2246원)도 평균(3만2186원, 2162원)을 상회했다. 반면 쌀(20kg)과 닭고기(1kg)는 각각 4만2047원, 5233원으로 평균(4만4055원, 5545원)보다 낮았다.

전남의 택시 기본요금도 중형기준 280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쓰레기 봉투(20ℓ)는 전북(294원), 경북(297원)에 이어 301원으로 저렴한 편이었다. 또 비빔밥(5500원), 김치찌개 백반(5167원), 짜장면(4000원) 등이 전국 평균보다 싸다. 미용료(1만2111원)는 전



국 평균(1만868원)을 상회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요금의 경우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시스템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그 밖의 요금은 통계청에서 1개 품목당 148개 업소 조사를 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10개 품목 가격을 공개했으나 체감 물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등산복 입을 내모습 예뻐요” 4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베네통 매장에서 아동을 위한 ‘키즈 아웃도어’가 첫 출시된 가운데 아이들이 아웃도어 재킷을 입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저축은행 3곳중 1곳 ‘자본잠식’

PF 대출 손실에 적자 급증...완전 잠식은 6곳

최근 영업적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축은행도 부실이 워낙 심해 3곳 중 1곳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저축은행 89곳의 감사보고서와 저축은행중앙회 경영공시를 분석했다. 6월 말 현재 37%(33곳)가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 중 6곳은 자본금을 모두 까먹고 부채만 근근이 꾸려가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자본잠식 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말 24곳보다 9곳 늘어났고, 완전자본잠식은 3곳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대폭 확대된 것은 영업 환경이 나빠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그

트파이낸싱(PF) 대출 손실에 급증했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 89곳의 2010 회계연도 당기손익은 3659억원 적자였다. 2009 회계연도의 821억원 적자보다 네 배 이상으로 늘었다.

자본잠식은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면 시작된다. 자본금을 모두 까먹게 되면 타인자본(부채)으로만 회사를 꾸려가는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된다. 이런 업체는 돌발 상황을 방어했을 때 외부에서 돈을 구하지 못하면 도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도 자본잠식상태였다. 자산규모 국내 1위인 솔로몬 저축은행은 작년 한 해에만 1천269억

원의 적자를 내며 자본금을 까먹기 시작했다. 1040억원 규모의 자본금이 6월 말 현재 608억원으로 급감해 자본잠식률이 41.52%에 달했다.

이 은행은 결산 이후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400억원 이상의 건물 매각 차익을 반영해 자본잠식을 해소했고 추가 자본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솔로몬 외에 흥국과 유니온저축은행 등 대형사들도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신한과 우리, 대원, 예스, 경남제일, 미래저축은행 등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신한과 경남제일, 미래는 지난해 6월 말에는 자본잠식이 아니었으나 1년 만에 자본금을 모두 날리고 완전자본잠식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

지역 소비자물가 9개월 연속 4%대 상승

지난달 광주지역 소비자물가가 지난 8월에 비해 0.3% 오르며 9개월 연속 4%대 상승을 기록했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9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광주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2.8(200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올랐다.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도

123.3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올랐으며 전월에 비해 보합을 유지했다.

광주지역의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오른 가운데 품목별로는 당근(26.1), 파(26.0), 토마토(26.0), 감자(25.5), 고춧가루(21.7), 양파(14.8) 순으로 많이 올랐다. 포도(-21.1), 오이(-19.

7), 호박(-10.8), 명태(-7.2), 상추(-6.5), 마늘(-5.5), 이동전화대비용(5.1), 닭고기(-3.4) 등은 내렸다.

또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 내린 반면, 전월보다 0.8%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신선어개류와 신선과실류가 지난해보다 각각 13.1%, 10.2% 올랐다.

지출목적별로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식료품·비주류음료 부문은 양배추, 브로콜리 등이 오른 반면 가지, 포도 등은 하락, 전체적으로 0.8% 상승했고, 기타 잡비 부문은 화장품비, 치약 등이 올라 2.5%, 의복·신발 부문은 장갑, 남자팬티 등이 올라 0.1%, 주거·수도광열 부문은 전·월세가 올라 0.2% 각각 상승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그리스 공포...금융시장 또 요동

코스피 63.46P 빠져 1706.19 ...환율 15.90원 올라 1194원

4일 코스피가 장중에 111포인트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30원 오른 1210원으로 15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이 또다시 요동을 쳤다.

개천절 연휴기간 그리스가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선언한 이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금융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졌다.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63.46포인트(3.59%) 내린 1706.19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83.43포인트(4.71%) 내린 1686.22로 출발해 장중 한때 111포인트 폭락했다. 코스피가 낙폭을 확대하자 한국거래소는 개장 6분 만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장 초반에 순매도를 나타냈던 연기

금에 '사자'로 전환해 2408억원을 순매수했다. 장 초반 순매수했던 외국인도 '팔자'로 돌아서 4560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970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개인은 6504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3.53포인트(3.01%) 내린 436.13으로 장을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90원

오른 1194.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21.90원 급등한 120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개장 후 1시간도 안 돼 1208.20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외환 당국의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줄었다. 이날 고점엔 지난해 7월22일 장중 1210.00원을 기록한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치다.

한편,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 6차분 지원 여부가 판가름나는 13일까지는 코스피의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증권 오성진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1600은 그리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가정하고 설정한 지수다. 가정이 무너지면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수출입은행 지원도 지역편차 커

울산 6조1365억 광주 4422억...수출기반 침체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수출기업 대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곤(민주) 의원이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 가운데 지역별 여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컸다. 광주지역 여신은 지난 2008년 761건에 3078억원이던 것이 2010년에

1417건에 4422억원으로 규모가 늘었지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전(1357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특히 2010년 1위인 울산의 6조 1365억원과 비교하면 13.8%에 머물고 있어 수출 중심의 기업기반이 절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광역시 가운데 울산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1조5611억원), 인천(9626

억원), 대구(7108억원), 광주(4422억원), 대전(1357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 2008년 1070건에 2조6257억원에서 2010년 5128건에 1조5686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출기반이 침체한 것으로 분석했다.

광역 자치도 가운데 순위로는 경남(16조5446억원), 경기(3조5335억원), 경북(1조6764억원)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여신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각 시도의 산업적 기반을 유추해 볼 수 있기에 광주·전남은 취약한 수출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권일기자 cki@

잠음없이 잘 들린다 음성증폭기 블루투스형출시!!

속 시원하게 잘 들립니다~ 너무 편리한 소리큐 S20 고성능 음성증폭기



MADE IN KOREA *본 제품은 의료기기 아닙니다.

음성이 잘 안들리실 때! 두손으로 작업을 하시면서 주변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으신 분! TV를 시청할 때 소리를 크게 듣고 싶으신 분! 핸드폰 통화할 때! 상담할 때! 강의를 하면서 대중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으신 분! 건전지가 필요 없는 충전식! (고속충전·정시간 사용)

귀에 꽂은 상태로 작은소리를 크게 듣고싶은 분들에게 소리큐 S20 음성 증폭기는 좋은 친구가 될것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특별우대 ★ 어르신께 최고의 선물 ★

인체공학적인 초소형 초경량 블루투스형 설계로 성능을 올리고 가격은 내리고! 간편한 휴대, 간편한 사용! 무게 9g 길이 5.5cm의 초경량 초소형 인체공학적인 블루투스형 설계로 착용시 무게감이 없어 편안하며 TV시청, 운동, 업무처리등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외부에 노출시 거리길 염려가 없고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아주 쉽게 누구나 사용 할수 있게 설계된 첨단 고성능 음성증폭기로 성능 올리고 가격은 내렸습니다. 국내기술로 개발 생산하여 뛰어난 품질과 사후관리를 1년간 무료교환 보장합니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 일상대화 | 텔레비전 시청 | 공연관람 | 강연회 | 조류관찰 | 자연관찰 | 아간감시 등등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820-6번지 송정한방병원 건물 4층 원일엠에스 문의 : 062)942-9822

“웨딩,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의 대항술인 행사”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여가지 뷔페

객실 50여실인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각종연회행사 할인! (들잔치,회갑연,송연모임,기업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수출시장은 오직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예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참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가격 4000 이상 보증시 원복점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가질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362-0011, 600-9999